금주의 법구–〈아함경〉
타인은 곧 나이고
나는 곧 타인이다.
남에게 상처주지 마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24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12월 1일) 2021년 1월 13일 수요일

급감하는 해외 사찰 10년사이 절반 수준

[진단] 조계종 해외특별교구법 제정 10년

1. 해외사찰 감소현황과 원인
2. 대안과 과제
3. 모범 해외사찰 사례
4. 대안 모색을 위한 좌담회

2009년과 2020년 편람 비교
11년 만에 142곳서 82곳으로
이후 창건사찰은 11곳에 불과
2011년 법제정 후 되레 감소
美 동부만 유지 성공에 '눈길'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올해는 조계종 해외특별교구법이 제정된 지 꼭 10년이 되는 해다. 해외특별교구법은 2011년 3월 한국불교의 국제화와 해외포교 체계화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처음 제정됐다. 그러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다. 해외특별교구법 제정을 통한 종단적 노력과 별개로, 조계종 해외사찰들이 감소추세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조계종이 전수조사를 토대로 발간한 '해외사찰 편람'에 따르면, 해외사찰은 지난 11년새 142곳에서 82곳으로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조계종이 지난 2020년 12월 발간한 '해외사찰 편람'과 2009년 '해외사찰 편람'을 비교한 결과다.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전화와 이메일로 전수조사를 주도한 조계종 사회부 국제팀은 상당수 사찰이 세월이 지나면서 폐사하거나 조계종과의 연관성이 희미해진 것으로 분석한다. 사찰 내부사정에 의해 현황보고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계종 해외사찰 명단에서 제외를 요청한 사찰도 존재한다. 무엇보다 해외라는 물리적 특수성에 기인한 조사과정의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통계상 11년 전에 비해 57%만이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감소추세는 명확하다.

문제는 이 같은 감소세가 2011년 해외특별교구법 제정 이후 드러난 현상이라는 점이다. 해외특별교구법은 2011년 3월 10일 한국불교의 국제화, 해외포교의 체계화 및 활성화 등을 위해 제정됐다. 이를 위해 종단은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지원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해외사찰은 해외포교 활성화를 위해 진력해야 한다는 기본방침도 명확하다.

그러나 정작 법 제정 2년 전인 2009년에 비해 해외사찰 수가 되레 감소했다는 점은 법제정에 따른 성과가 미비함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해외사찰 편람에 따르면 감소세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국가는 일본과 중국, 필리핀이다. 일본의 경우 2009년 7곳이 운영됐으나 2020년 2곳만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중국 역시 2009년 10곳에서 2곳으로 감소했다. 필리핀과 싱가포르는 2009년 각각 운영됐던 2곳, 총 4곳 모두 2020년 편람에서 자취를 감췄다.

다른 국가도 사정은 비슷하다. 캐나다는 10곳에서 4곳으로, 브라질과 인도, 독일은 각 3곳에서 1곳으로 감소했으며, 멕시코는 2곳에서 1곳, 뉴질랜드는 4곳에서 2곳, 1곳 사찰만 존재했던 스리랑카와 스위스는 2020년에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편람에 따르면 해외사찰 가운데 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의 경우 현황변화에서 중서부와 동부간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주목된다.

중서부의 경우 2009년 43곳 사찰이 운영됐으나, 2020년 편람에는 24곳으로 확인됐다. 2009년 이후 중서부지역에서 새롭게 창건한 사찰이 5곳임을 감안하면 반 이상이 편람에서 제외된 셈이다. 특히 중서부지역의 경우 현재 사찰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조계종과의 관계성이 희미해지거나 내부 사정으로 편람에 포함되길 꺼려한 사찰도 일부 확인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동부지역은 2009년 29곳에서 23곳으로 소폭 감소한 반면, 새롭게 창건된 사찰은 2곳으로 확인됐다. 기존 운영되던 사찰이 다른 국가나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유지되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힌다.

이는 미동부에 최초의 조계종 해외특별교구(현 미동부지부)가 설립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미동부지역은 해외특별교구법 제정 이후인 2012년 전세계 국가 중 처음으로 조계종 해외특별교구가 설립됐고, 종단 차원에서 교구장을 임명한 곳이다. 2017년 해외특별교구법 개정에 따라 현재 해외지회 형태로 운영 중이며, 이후 미국 중서부 지역에도 지회가 출범했다. 조계종 사찰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체계가 갖춰진 지역이라는 분석이다.

〈관련기사 3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사진 왼쪽)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한 언택트 신년인사회에서 "상생과 화합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새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은 언택트로 진행된 신년인사회의 모습. 사진제공=조계종 홍보팀

원행 스님 "상생 · 화합으로 새 희망을"

청와대 주최 언택트 신년인사회서 신년 덕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신년인사회에서 "상생과 화합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새해가 되길 바란다"고 신년덕담을 전했다. 올해 신년인사회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온라인 영상회의로 진행됐으며, 대국민 신년인사의 형태로 공개돼 주목된다. 특히 매년 새해 각 분야별 대표단을 초청한 가운데 진행됐던 청와대 신년간담회가 대국민을 대상으로 한 언택트 방식으로 열린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7일 여야 정당 대표와 정부인사, 경제계 대표 등 5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온라인 신년인사회를 진행했다. 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이기도 한 원행 스님은 종교 · 문화계 대표자격으로 참석했으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 설치된 모니터 및 영상기기를 통해 국민들에게 새해 덕담을 전했다.

이날 원행 스님은 "신축년 새해를 맞아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 여러분들께 인사드린다"며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상생과 화합으로 대한민국이 새로운 희망으로 하나되길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스님은 "대한민국은 어떤 국난이나 위기에도 용기를 잃지 않고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며 "대통령님을 비롯한 여러분과 힘을 모아 종교계도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에게 위안을 주는 종교로서 우리 사회의 고통과 함께하겠다는 다짐과 위로도 전했다. 스님은 "종교계는 국민들이 위기에 지치지 않고 일상적인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항상 곁에서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인사에서 국민 일상의 회복과 마음의 통합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코로나와 경제위기 앞에서 의료인은 물론, 노동자와 기업, 자원봉사자와 화합 · 희망의 정신을 북돋아 준 종교계까지 많은 분들이 스스로 촛불이 되어 어둠을 밝혀주셨다"며 "올해는 회복과 통합과 도약의 해로 삼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로나와 관련 "다음달부터 코로나 백신접종을 시작할 방침이며, 국내기업의 치료제 심사도 진행중"이라며 "철저한 방역과 백신, 치료제를 통해 반드시 코로나를 극복하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에 따르면 다음주부터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국민 취업지원제도 도입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이 크게 강화될 방침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를 통해 우리는 서로 연결돼 있음을 절감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통합이다. 서로 존중하고 우리의 성과를 함께 인정하고 자부하며 더 큰발전의 계기로 삼을 때 우리사회는 더욱 통합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지희 기자



COVER STORY 숨겨진 성보 '마애종' 아시나요

국보 · 보물급 성보 '마애종'에 관심을

안양시를 대표하는 불교문화재는 단연 보물 제4호 중추사지 당간지주다. 이를 통해 통일신라 시기 안양에 중추사라는 사찰이 건립됐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이 자리에 고려 태조가 안양사를 세운다. 그리고 안양이라는 지명이 형성된다.

지금도 안양예술공원에는 중추사지 당간지주와 삼층석탑, 안양사의 금당지 등이 남아있다. 이 근처에는 아는 사람들만 아는 불교문화재가 있다. 바로 '석수동 마애종'이다.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92호인 '석수동 마애종'은 일반 마애조각상과는 다르다. 승려가 범종을 타종하는 모습을 조각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연구를 통해 하나같이 입을 모은다. "국내 · 외 유일 타종하는 마애상"이니 "지방문화재가 아니라 국가지정문화재(국보 · 보물)로 지정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젠 숨겨져 있는 성보문화재 '마애종'이 제대로 된 가치 평가를 받고 보호 조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추사-안양사로 이어지는 일대 사격에 대한 재평가도 이뤄져야 한다. 〈관련기사 4면〉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2021년
4대 사업 공모 및 대원아카데미 학생 모집

(재)대한불교진흥원에서는 2021년 불교의 현대화 · 생활화 · 대중화라는 재단의 설립 취지를 새롭게 조명하고
시대 상황에 맞는 불교 진흥을 위해 2021년 상반기에 4가지 사업의 공모 및 대원아카데미 학생 모집을 실시합니다.

1. 제11회 원효학술상 공모
접수 기간 : 2021년 2월 1일(월) ~ 2월 26일(금)

2. 제2기 불교 기관 · 단체 지원사업 공모
접수 기간 : 2021년 1월 4일(월) ~ 1월 29일(금)

3. 제2기 대원청년 불자상 · 동아리상 공모
접수 기간 : 2021년 2월 1일(월) ~ 2월 19일(금)

4. 제3기 대원불교 학술 · 콘텐츠 공모
접수 기간 : 2021년 2월 15일(월) ~ 3월 12일(금)

평생교육기관
대원아카데미
(구, 대원불교문화대학)
2021년 3월 개강
접수 기간 : 2021년 2월 1일~2월 26일
불교심리상담사,
명상지도사 자격 취득 가능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상세 공모 내용은 홈페이지(www.kbpf.org)
문의 : 02-719-2606, 1855